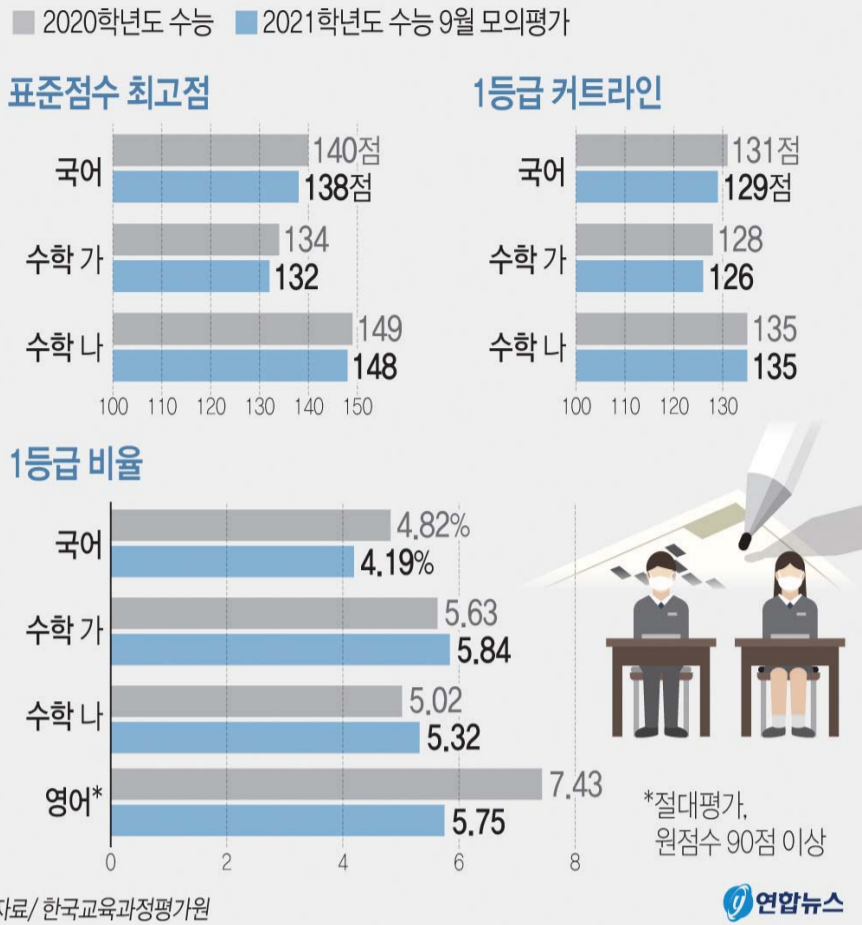


국·영·수 어려웠다... '쉬운 수능' 기대 어려울 듯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수능 가능자' 9월 모평 채점결과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 결과, 지난해 수능보다 국어와 수학 나형, 영어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 19 사태 속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가 어려워졌다.

◇ "국어·수학 나형 부담 컸을 듯"...난도 높아 등급 구분 표준점수 하락=지난달 16일 치러진 2021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국어 영역과 수학 나형, 영어 영역이 비교적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한다. 수험생에게는 14일 개인별 성적 통지표를 배부한다.

평가원은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영역은 138점, 수학 가형은 132점, 수학 나형은 148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영역과 수학 가형 최고점은 각각 2점, 수학 나형 최고점은 1점 하락했다.

국어와 수학 나형의 경우 표준점수 수준 자체가 높아 난도가 높았다는 게 입시업체

평가원 "재수생·재학생 성적 차이 예년과 비슷" 입시업체 "중위권 줄고 상·하위권 격차 벌어져"

들의 분석이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과 2등급 이 나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1등급 커트라인)는 국어영역 129점, 수학 가형 126점, 수학 나형 135점이었었다.

국어영역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 비율은 4.19%로 작년 수능(4.82%)보다 감소했고, 표준점수 최고점 비율도 0.06%로 작년 수능(0.16%)보다 줄었다.

수학 가형 1등급 비율은 5.84%로 작년 수능(5.63%)보다 확대됐고, 표준점수 최고점 비율도 0.58%에서 0.71%로 늘었다. 수학 나형 1등급 비율은 5.32%로 작년 수능(5.02%)보다 상승했으나 표준점수 최고점자 비율은 0.21%에서 0.17%로 쪼그라들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1등급 학생 비율이 5.75%로, 지난해 수능(7.43%) 때보다 줄며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 평가원은 중위권 안 줄었다는데...입시업체 "상·하위권 격차 벌어져"=시험을 주관한 평가원은 재수생과 재학생의 성적 차이가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수생 강세와 중위권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성적 격차 등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시업체에서는 평가원의 분석과는 달리 중위권이 줄어 상·하위권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영덕 대성학원 학력개발연구소장은 "국어, 수학 나형이 어려웠음에도 표준점수가 작년 수능보다 하락한 것은 상·하위권 격차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평균에서 점수가 떨어진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즉 학생들 간 성적 격차가 심해질수록 사실상 표준점수는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3에게는 올해 코로나19 영향이 다소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 역시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작년 9월 모의평가 때와 비슷한데 2~3등급 비율은 6%가량 줄고 5등급 이하 비율은 6% 늘었다"며 "6월 모의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상위권은 안정감 있게 비율이 유지되는데 2~3등급은 줄고 하위권은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9.3대 1 전남 2.8대 1

2021 유·초등 임용 경쟁률

최근 2021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접수 결과, 광주와 전남이 평균 9.3대 1과 2.8대 1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광주 8.1대 1, 전남 2.9대 1)와 비교해 광주는 증가했고, 전남은 소폭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분야별 선발대비 지원 인원은 ▲유치원 교사 19명 선발에 304명(16대 1) ▲초등학교 교사 11명 선발에 72명(6.5대 1)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4명 선발에 25명(6.3대 1) ▲특수학교(초등) 교사 17명 선발에 79명(4.6대 1) ▲사립 특수학교(초등) 교사 1명 선발에 6명(6대 1) 등이다.

전남의 경우 분야별 선발대비 지원 인원은 ▲유치원 교사 69명 선발에 607명(8.8대 1) ▲초등학교 교사 242명 선발에 360명(1.49대 1)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3명 선발에 12명(4.0대 1) ▲특수학교(초등) 교사 49명 선발에 207명(4.02대 1) 등이다.

1차 시험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대학원, 장학혜택 대폭 확대

첫 학기 등록금 지원·총장명예장학금 신설

전남대학교가 대학원 장학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전남대 대학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후속 학문세대의 안정적인 양성 토대를 갖추기 위해 한 학기 등록금만으로도 대학원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 개

편하고, 예비 대학원생 발굴에 나섰다.

전남대는 우선 석사진입을 희망하는 학부 졸업 예정자에게 첫 학기 등록금을 지원하는 '도전미래장학금'을 신설했다.

또한 예비 대학원생 조기발굴을 위한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학부연구생 장학

금'과 석·박사통합과정 진입을 앞둔 국내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총장명예장학금' 등도 새로 만들었다.

대학원생들이 후속 학문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

주요 지원제도로는 ▲국외연수 지원 ▲연구기획역량강화지원 ▲연구논문 장려제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에서부터 ▲외국어교육 ▲통계교육 ▲외국어 학술논문 교정료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도록 했다.

/채희중 기자 chae@



13일 원전관련 시민 모임과 각 분야 시민단체들의 연대인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공동행동'은 한빛원전 앞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안전성 평가·검증없는 가동 안돼”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오늘로 888일째 멈춰있는 한빛원전 3호기(가압경수형·100만 kW급)가 10월 내 재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단체들이 한빛 3호기 가동 중단을 촉구 하고 나섰다.

13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이날 한빛 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3호기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당장 폐로 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제공받은 '한빛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건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빛 3호기는 적용 기술 기준, 하중 및 하중조합, 구조 허용기준 및 보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전 안전심사 지침서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를 만족하고 있으며, 한빛 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이 구조적 건전함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

- 한빛 3호기 재가동 반대 이유
- 중대한 평가요소 '균열 평가' 빠져있다
- 평가 실시 주체 객관성·독립성 없다
- 공극 발생 근본적 원인 조사 결여됐다

고 나섰다. 2년 5개월 동안 멈춰 있던 한빛3호기를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검증도 없이 재가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구조건전성 평가는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면서 "격납건물의 내부 1m 안의 공극과 균열을 파악하지 못한 구조건전성평가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작 격납건물 외부 20cm 범위 이내에서만 확인·보수된 공극만으로는 구조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조물건전성평가를 실시한 주체의 객관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및 외부검증기관인 콘

크리트학회, 프라마포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면서 "평가 및 검증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 신뢰성 모두 결코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극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가 결여됐고, 격납건물 철관 부식의 진행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중요한 평가들도 빠져있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대응 관계자는 "한빛3호기가 10월 17일께 원안위로 부터 재가동 승인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에 따른 한빛3호기 재가동을 중지하고 당장 폐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3호기는 제17차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지난 2018년 5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공극이 124곳이 발견돼 가동을 멈춘 상태다.

당초 지난 5월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구조물건전성 평가가 지난 8월에야 끝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문병산 교수연구팀·줄기세포재생유전학연구소실

세계 최초 뇌종양 줄기세포 억제 메커니즘 규명

전남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뇌종양 증식과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호전달 경로를 규명했다.

전남대 문병산(생명산업공학과)교수팀은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중국 난카이 대학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후성 유전자 조절 바이오 마커로 알려진 'MBD3'를 조절할 경우 뇌종양 암줄기세포 분화를 유도해 뇌종양 발생 억제는 물론 전이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연구성과는 뇌종양 암 줄기세포를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MBD3' 유전자 기능을 규명하고 단백질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암 억제 효력을 확인한 사례로, 미국 의과학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온라인 판(10월 5일)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신경줄기세포를 활용한 이 전 연구에서 MBD3를 연구한 데 이은 후

속 연구로, 신경줄기세포의 분화 조절에 관여하는 후성유전학적 바이오 마커인 MBD3를 조작했을 때 뇌 종양 암 줄기세포 제거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뇌종양 암줄기세포가 신경줄기세포에서 기원할 수 있다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문병산 교수는 "이번 연구는 MBD3를 기능적으로 저해함으로써 기존 항암제 내성을 보이는 뇌종양 줄기세포 및 재발성 뇌종양의 분화 능력과 생존 관련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등 뇌종양 치료에 다가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증-44360호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숙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제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숙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원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저희 서정환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 가능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분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에서 약 60m/라미다 서울호텔 맞은편

성조숙증클리닉 성장클리닉

서정환의원

seojung.com

소아비만, 성조숙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